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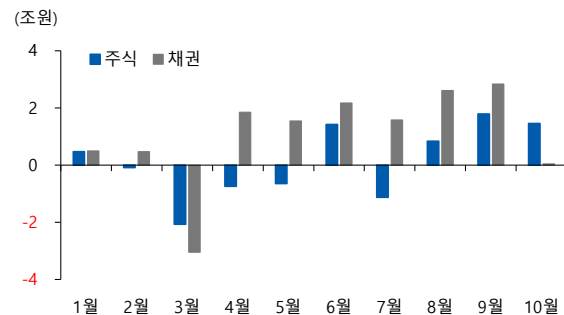


채권에서 주식으로

1. 10월 채권펀드 유입 규모 감소

-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10월 채권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45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음.
- 주식펀드는 3달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하고 있음.
- 국내주식ETF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내주식 펀드가 전년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10월 채권펀드로의 유입 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주식 펀드로의 순유입은 3달째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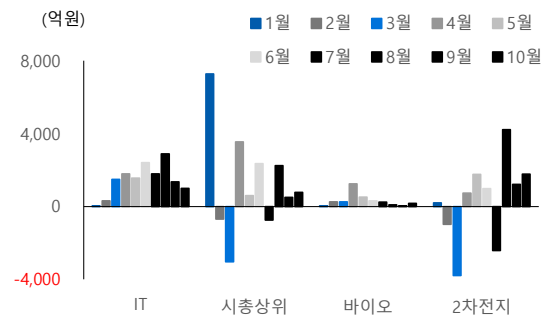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2차전지와 미국

- 10월에는 시총상위(Top)펀드와 2차전지 펀드, 바이오펀드 등이 9월보다 설정액 증가.
- 2차전지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3달 연속 2차전지 펀드로는 자금 유입.
- 해외주식펀드 중에서는 북미 유형과 인도 유형, IT 유형으로 자금 유입

국내주식 유형 중에서 시총상위(Top)펀드와 2차전지 펀드로의 자금 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10월 채권펀드 자금 유입 규모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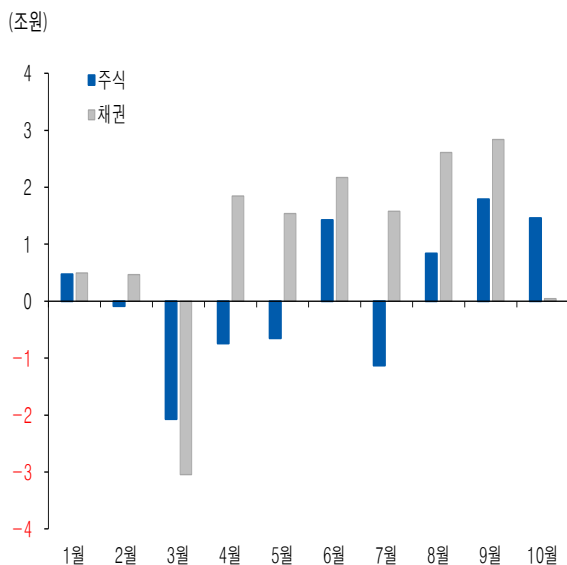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채권펀드로는 4월부터 월간 1.5~3조 원이 순유입되었다. 최근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10월 채권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453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주식펀드는 3달 연속 자금이 유입되면서 달라진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레버리지ETF로의 자금 유입이 특징적이었다.

국내주식펀드는 2010년 이후 액티브주식펀드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져 온 상태였다. 2023년은 액티브 ETF가 생겨나면서, 액티브주식펀드의 순자산이 2022년말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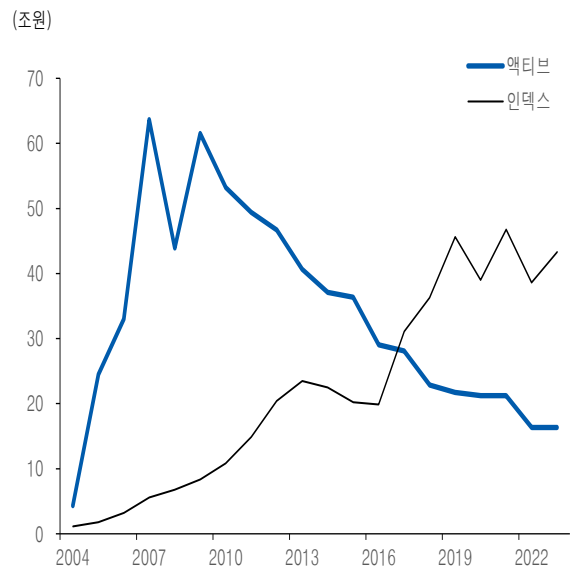
인덱스주식펀드도 테마ETF와 섹터ETF가 활발하게 신규 설정되면서, 10월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4조원 이상 순자산이 늘어난 상황이다.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늘어나면서, 오랜만에 국내주식펀드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1] 10월 채권펀드로의 유입 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주식 펀드로의 순유입은 3달째 이어짐 .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연초 이후 국내주식펀드 중 인덱스펀드는 순자산 증가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2차전지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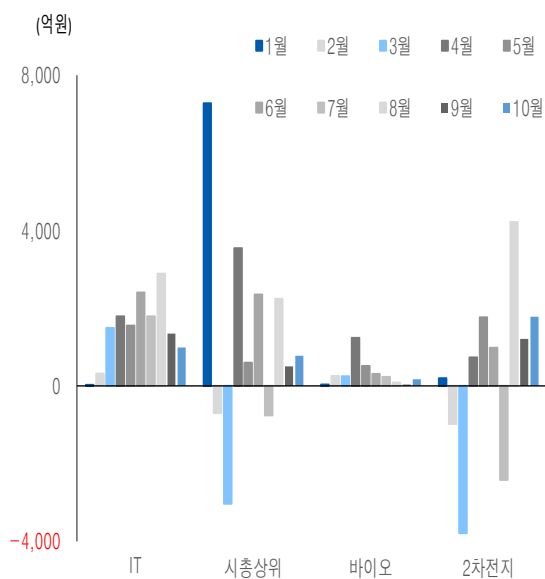
9월은 국내주식 주요 테마 유형이 전월에 비해 설정액이 감소한 경우가 많았으나, 10월에는 시총상위(Top)펀드와 2차전지 펀드, 바이오펀드 등이 9월보다 설정액이 늘어났다.

2차전지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3달 연속 2차전지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바이오펀드도 일부 종목이 하락하였으나, 설정액은 전월보다 약간 늘어났다.

IT펀드는 반도체 등의 펀드가 신규 설정되었으나, 설정액 증가 규모는 전월보다 줄어들었다. 국내주식배당유형과 국내주식 중소형유형은 10월에는 설정액이 순감소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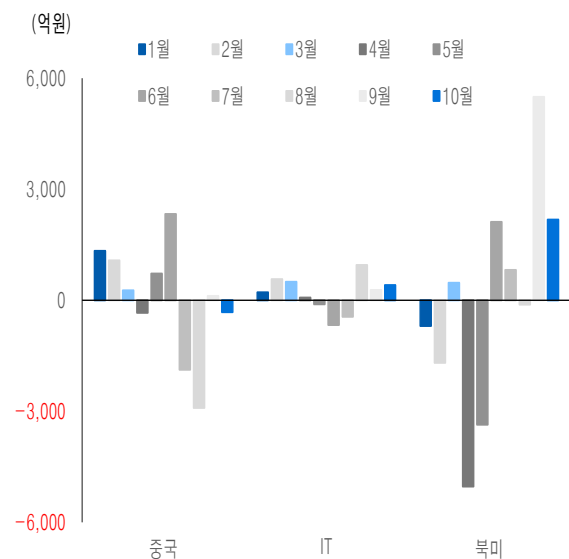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 주요 유형 중에서는 북미 유형과 인도 유형, IT 유형으로 자금이 들어왔으며, 중국 유형과 일본 유형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투자자들이 성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지역이나 테마로의 투자 패턴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차트3] 국내주식 유형 중에서 시총상위(Top)펀드와 2차전지 펀드로의 자금 유입 증가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해외주식 펀드 중에서는 북미 펀드 자금 유입 이어짐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10월 국내주식펀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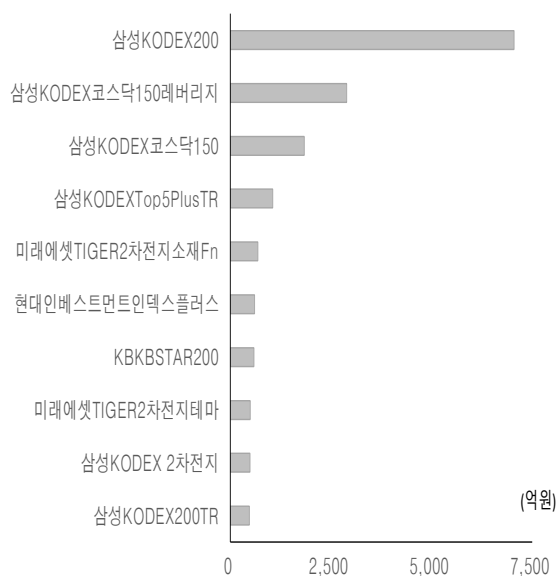
10월 국내외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테마펀드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ETF와 레버리지 ETF로 투자가 많이 되었다. 테마 유형 중에서는 2차전지 테마가 자금 유입 상위권에 들었다.

10월 신규펀드는 10개의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이중 ETF가 9개이다. 신규펀드는 2차전지, IT, 로봇, 그룹주, 자동차, 배당 등의 투자전략으로 운용된다. 상위 종목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펀드도 출시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성장'에 높은 가치를 두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나 테마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선호하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생겨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과 업종에 대한 비중을 감안하면서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트3] 10월 국내주식 펀드의 자금 순유입 Top 펀드.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10월 신규 설정 국내주식펀드

펀드명	설정일	순자산(억원)
키움KOSFEK-테크TOP10	2023-10-30	83
하나K-king	2023-10-27	12
키움KOSFE코스닥글로벌	2023-10-23	80
KBKBSTARAI&로봇	2023-10-23	76
BNKBNK2차전지양극재	2023-10-18	73
한국투자ACE포스코그룹포커스	2023-10-16	236
한국투자ACEAI반도체포커스	2023-10-16	91
미래에셋TIGER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2023-10-16	225
신한SOL자동차TOP3플러스	2023-10-04	93
신한SOL조선TOP3플러스	2023-10-04	90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